

대우전자 경영 정상화...이젠 지역경제 '희망'

글로벌 대전기업이었던 대우전자가 오랜 시련 끝에 광주기업인 대우그룹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대우전자가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0%대 고금리 수준인 해외부채를 과감히 줄이고 국내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우전자가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우그룹(회장 박영우)은 최근 대우전자 인수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독립했다가 동부그룹(현DB그룹)를 거쳐 201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면서 대우전자 브랜드를 12년 만에 되찾았다.

지난 2014년 위니아아반도를 인수해 대우위니아를 출범한 데 이어, 대우전자마저 인수한 대우그룹은 가전 분야를 중심

해외부채 이자만 연200억...해결 방안 과제

국내 은행 선제지원시 연100억 국부유출 막아

대우그룹 인수 후 불안정 감소로 금융권 관심

광주지역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으로 종합가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해온 대우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우그룹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우전자의 자구노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경총 관계자도 "전세계 100여개

국에 수출을 진행하며 매출규모 1조 5,000억이 넘는 대우전자가 대우그룹에 인수 이후 지속적인 대내외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매출확대 및 이익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전자는 지난 2013년 동부그룹에 인수된 이후 5년째 신규 금융거래 지원

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력 제품인 세탁기와 냉장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원해오던 무역금융(유전스) 6,000만달러를 전액 회수하며 대우전자의 운영자금 부족을 초래했으며,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국내금융기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대우전자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20억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멕시코의 해외 생산공장 투자자금 약 600억원을 현지 국가의 고금리로 조달해 설비 확충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우전자는 제1금융권의 여신한도 축소 등으로 제2금융권에 차입금이 편중돼 있어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우전자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 19억8,000만원, 당기

순손실 227억원이다. 2016년 영업이익률은 0.1%에 머물렀고 부채비율 역시 2014년 383%에서 2016년 433%까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 부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전자의 해외매출 비중은 75%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빌린 부채의 한 해 이자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 금리가 4-5% 수준인데 비해 해외는 10% 내외로 해외 부채를 국내로 돌리지만 해도 한 해 100억 가량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국내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및 국책은행의 수출입에 필요한 수출금융,

본지사 수출채권 팩토링 및 수입유안스 한도확대, 해외공장 사업자금 등의 추가 자금 지원시 대우전자는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분야에 사태로 약재가 겹친 광주에 대우그룹과 대우전자가 호재를 가지고 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노조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중이다. 정상화를 위해 시와 채권단,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우그룹의 대우전자 인수는 광주 지역경제에 희망적이다.

대우그룹은 인수절차 진행시 대우전자 광주공장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더불어 부평연구소, 성남물류센터 등 중복 고정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증자를 통한 부채감축 및 유동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우전자 광주공장 산하에는 생산직 430여명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인력 총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 9일 부분파업·15일 총파업

채권단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방침에 반발하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9일 부분파업을, 15일 총파업을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5일 "채권단이 해외매각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9일 광주·곡성·평택공장서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15일 하루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5일 총파업 전까지 쟁의대책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파업수위와 방향 등을 결정한다"며 "15일 총파업 출정식 때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3일 6시간, 4일 2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자구안을 공식 폐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블스타와 협상이 대안이라는 발표는, 채권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민의 고용, 지역경제 혼란은 고민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결과"라며 "해외매각으로 우려되는 제2의 지역, 쌍용차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지키기 광주 범시민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미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문화 조성 행사를 가졌다.

광주국세청, 납세자의날 기념행사 '풍성'

모범납세자 표창장·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항)은 5일 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지역 경제단체장, 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문화 조성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 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세정에 협조해 준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상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세무관에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청소년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세금교실운영, 세금문예작품 입상작 상설 전시장을 별도 설치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플린트컴포지트코리아(주)가 동탑산업훈장, ㈜화인모텍과 백진환경 합자회사가 산업포장, ㈜서광과 ㈜성전건설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무총리 표창 1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0명, 세무서장 표창 29명 등 총 85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또 국세청장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수상일로부터 세무조사 유예와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미애 기자

광주세관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11개 업체 표창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 수출입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가 은탑산업훈장, ㈜동원에프엔비는 산업포장, 깨끗한나라

(주)가 국무총리 표창, 이하 4개 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고, 세정협조자로는 대상주식회사 등이 관세청장 표창, ㈜호원 박찬수 계장 등이 선정돼 광주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주시경 세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에 기

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에도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5일부터 9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출입 업체에 대한 '감사의 서신' 보내기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aT, 소규모업체 HACCP 인증 지원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등 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 이하 교육원)은 중소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다음의 두 교육과정을 경계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돼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천' 과정은 올해 신설 과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실행 내용에 입각한 심화과정이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직직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은 오는 4월, 6월, 8월,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이며,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천' 과정은 오는 7월과 11월에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동 기자

대한항공, 창립 49주년 기념식

대한항공은 5일 오전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9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대한항공의 창립일은 1969년 3월 1일이다.

조양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안전운항과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창립 당시의 대한항공은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었고, 민간기업으로서 유연한 역량을 통해 개척한 길로 항공산업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회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개신(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 제19회 노사협력대상과 노사협력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갖는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경영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전국경총과 함께 대정부 건의와 의정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며 "아울러 지역 노사관계 불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광주형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노무 이슈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노무 애로사항 관련 1대1 현장상담이 진행된다.

강연과 현장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 중인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중소기업 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설명회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와 현장상담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 상담은 국번없이 1666-9976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광주·전남 유망중소기업 육성

광주전남 중기청, 선정기업 R&D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R&D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R&D 지원사업은 광주전남중기청이 기획, 평가, 선정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며, 전문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27억원의 사업비로 광주 3개사, 전남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3억 9,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의 신기술·신제품을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시,전남도가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역에 따라 자격조건이 있으며, 광주시는 명품강소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을 인준받은 기업, 전남도는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및 광주·전남중기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으로 한정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형동 기자

전남정보진흥원, 융합콘텐츠 육성

22일까지...창업초기·스타트업 기업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 체험형 영상, 게임 등 융·복합콘텐츠 분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할 창업 초기 및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한다.

5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링 등 경영·기획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르 제한 없이 융·복합콘텐츠분야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한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전라남도 소재로 사업자등록 또는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서면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통해 4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교육 후 우수 아이디어(10개)로 선정 시 팀당 3,600만원 이내의 스타트업 활동비와 시제품 제작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마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 융합콘텐츠진흥팀(나주)으로 우편,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yeol13@jci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유형동 기자